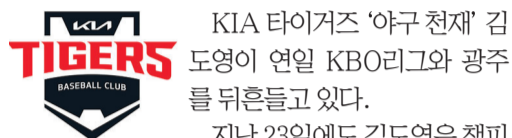


“김도영 보는 재미에 산다”

4타석에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타율 3위·홈런 2위·OPS 1위
MVP급 활약 KIA 1위 이끌어



KIA 타이거즈 '야구 천재' 김도영이 연일 KBO리그와 광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김도영은 챔피언스필드를 열광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KIA팬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렸다. <관련기사 19면>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0차전이 열린 이날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 2루타를 기록했다. 5회말 원아웃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좌중간 깊은 안타를 친 뒤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스피드를 과시하면서 3루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1루타, 2루타에 이어 3루타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6회 김도영이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숨 죽이며 NC 투수 배재환과의 승부를 지켜봤다. 소크라테스를 1루 주자로 두고 승부를 펼친 김도영은 5구째 슬라이더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날렸다. 멀리 뻗어나간 공이 외야 관중석에 떨어지면서 김도영의 생애 처음이자 리그 31번째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됐다.

그날 사이클링 히트가 아니었다. 단타를 시작으로 2루타, 3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순서대로 채운 KBO 역사상 두 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였다. 앞선 기록은 1996년 롯데 김응국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아웃카운트 하나 없이 4타석 만에 만든 '최소 타석' 그리고 최연소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도 기록됐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올해 프로 3번째 시즌을 맞은 그는 많은 이들의 기대 대로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KBO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됐다.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김도영은 이날 경기까지 93경기에 나와 타율 0.354, 25홈런, 71타점, 97득점, 29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SSG 에레디아(0.362)와 롯데 레이엑스(0.358) 두 외국인 선수에 이어 타율 3위에 자리한 그는 홈런 부문에서는 NC 데이비스에 이어 2위다. 0.643의 장타율로 이 부문 1위, 0.423의 출루율로 3위에 랭크됐다. 득점 1위 김도영은 100득점에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4월 '월간 10홈런·10도루'라는 KBO에 없던 기록을 만들었고, 지난 6월 23일에는 한화의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시즌 20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에 '20·20'을 달성한 선수로 됐다. 전반기 '20·20'을 기록한 선수는 박

김도영 인터뷰 '유튜브 광주일보' 15만뷰 돌파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NC와 KIA의 경기. KIA 김도영이 6회말 1사 1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홈런으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이어지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재홍(1996~2000년), 이병규(1999년), 테임즈(2015년)가 있다. 김도영이 '신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KIA는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 성적과 팀 순위까지 동시에 잡은 김도영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상(MVP)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김도영이 MVP 트로피를 차지하면 KBO에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낮엔 폭염에 지치고 열대야에 잠 못들고

광주·전남 5일째 폭염·열대야
소나기에 습도 높아 땀 줄줄
온열질환자 80명 넘게 발생
수분 섭취·야외활동 자제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5일째 이어지면서 한중대 더위에 광주·전남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장맛비와 소나기가 교차하면서 온도와 습도까지 치솟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탁탁' 막히는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광주·나주·보성·완도·영암·무안·영광·담양·순천·함평·곡성·구례·화순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전남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광주지역 체감온도 최고기온은 34.7도(실제온도 33.7도)에 달했고, 담양에서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6.5도(실제온도 34도)까지 치솟았다.

화순과 구례에서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7도(실제온도 화순 34도, 구례 35도)까지 올랐다. 단일 폭염특보가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되면서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더라도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광주 14명, 전남 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광주 북구에서 6명의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광산구(4명), 서구(3명), 동구(1명)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광양에서 18명의 온열환자가 생겼고, 목포·여수(각 11명), 해남(6명), 순천(5명), 장성(4명), 신안(3명), 보성(2명), 영암·무안·화순·고흥·나주·담양·완도(각 1명) 순으로 온열환자가 있었다. 광주·전남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7명 급증하기도 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5일째 이어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다.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찍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힘겨운 여름나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고도 약 12km 지역은 티

베트고기압, 5~6km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배치돼 고온 다습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기상패턴은 강한 태양열 등이 지표면을 계속 달궈 열돔현상을 낳는다. 소나기도 이어져 숨이 탁탁 막히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염현상 때문에 장마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 중국으로 이동하는 제3호 태풍 '개미'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태풍이 중국 내륙에 부딪혀 저기압으로 변해 북태평양고기압에 영향을 끼치면 장마전선에 에너지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 빈곤가구,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고,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도심에서 여름휴가 즐기세요 ▶5면



파리 올림픽 27일 개막...17일 열전 돌입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